

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	<h1>보도자료</h1>	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
	• 배포 : 2020. 7. 17(금)	
담당자	• 전략기획실 박남희 실장 / 정진도 책임연구원 • ☎ 031-389-6429 / 6365 • nhpark@kaia.re.kr / space@kaia.re.kr	
보도일시	• 2020년 7월 18일(토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즉시 보도 가능	

포스트 코로나, 이동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다.

7월 17일(금), “교통 분야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정책 포럼” 개최

-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(원장 손봉수, 이하 국토교통진흥원)은 7월 17일(금), 국회의원 김윤덕 의원실, 박상혁 의원실(이상 더불어민주당), 국토교통부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“포스트 코로나, 이동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다”를 주제로 교통 분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.
- 이번 정책 포럼은 ‘현재 감염병 우려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중 교통 수요가 급감하고, 자가 및 공유차량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, 코로나 이후에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’으로 예측됨에 따라 향후 교통 분야 연구개발의 전략적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.
- 정책 포럼과 겸한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, 박상혁 의원, 손봉수 국토교통진흥원 원장과 황기연 홍익대학교 교수 등 교통 분야의 산·학·연 전문가 약 60여명이 참석하였다.

- 혁신토론회는 황기연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(주제 : ‘포스트 코로나 변화 전망과 교통 환경 및 여건 변화’)와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(주제 : ‘포스트 코로나 한국형 뉴딜과 교통부문의 추진과제’)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김경석 공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.
- 패널토론에는 김호정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,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 전문 기자, 박지홍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장, 박현철 국토교통진흥원 기획6그룹장이 참여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통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.
- 국토교통진흥원 손봉수 원장은 “코로나 팬데믹은 종결 이후에도 교통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”이라고 지적하며, “국토교통 R&D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통 방향을 제시하여 다가올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”고 말했다.



교통 분야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정책 포럼('20.7.17)



손봉수 원장 개회사('20.7.17)



김윤덕 의원 환영사('20.7.17)



황기연 교수 발표('20.7.17)

※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(www.kaia.re.kr)

국토교통부 산하 유일한 국가 R&D사업 전문기관으로서 5,247억 원('20년 기준)의 R&D 예산을 집행관리하고 있으며, 주요 사업으로는 건설기술연구사업, 플랜트연구사업, 도시건축연구사업, 교통물류연구사업, 철도기술연구사업,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 등과 건설·교통 신기술 인증사업이 있다.